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북경, 하북성)

보고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I. 출장 개요

1. 방문 목적

-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하북성과의 교류협력 증진
-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대한 충남도 농민들의 이해와 한중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 하북성지역 항일 유적지 방문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명단

- 방문기간: 2016년 7월 10일(일)~14일(목)(4박5일)
- 방문지: 북경시, 하북성 한단시
- 방문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 연맹 장명진 의장 등 총 30명

3. 주요 일정

날 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세 부 사 항
7.10 (일)	인 천	OZ 331E	08:40	인천공항 출발
	북 경	전용차량	09:40	북경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소요 / 시차-1시간] 가이드 미팅 후 중식
	한 단	G69	13:05 15:07	기차역 이동 한단 도착 - 남장촌(독립운동가들이 토굴에 살며 농사지었던 마을) - 중원촌(독립운동가들이 가르친 태권도 전승마을) 석식 후 호텔 체크인 HOTEL : 용산호텔(4성) 또는 동급
7.11	섭 현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 십자령 전투지역 [하북성 섭현 / 약 1시간10분]

(월)	좌권현			(조선의용군이 참전한 항일무장투쟁의 최대격전지) - 상무촌 [독립운동가들이 최초 주둔한 농촌마을] - 마전[팔로군 총사령부] - 운둔저촌[조선의용대와 팔로군이 함께 농사를 지었던 마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천의 호텔 또는 동급
7.12 (화)	섭 현 좌권현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 석문촌 [윤세주.진광화 열사 초장기, 조선의용군 기념관] - 백사촌 [중국 현대화농촌 시범마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강업 호텔 또는 동급
7.13 (수)	한 단 한 단 석가장 북 경	전용차량	전 일 20:00 21:00	호텔 조식 후 -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지) - 황북평촌(충청도 출신 독립운동가 두 분 묘소있는 곳) - 하북성 석가장 국가현대농업시범구 석가장 기차역(고속열차)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퍼시픽 호텔 또는 동급
7.14 (목)	북 경 인 천	전용차량	오전 17:10 20:10	호텔 조식 후 - 왕푸징 근대사연구소(일본군 헌병사령부, 이육사 순국장소) - 웨어하베스트 농장(농촌지역공동체지원 농장) 북경국제공항 인천공항 도착

II. 주요 활동 내용

1. 제1일차(7월 10일)

○ 남장촌(南庄村) 방문

- 한단시 섭현에 위치한 남장촌은 중국 내 항일운동시기인 1943~44년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조선혁명군정학교(교장: 정율성)를 설립하고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을 실시했던 곳이다.
- 대원들은 주로 토굴을 파서 생활했는데 현재도 당시 생활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 이 시기에는 큰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 인근 오지산 자락을 개간해 농업생산 활동도 병행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 중원촌(中原村) 방문

- 중원촌은 항일운동시기 화북청년혁명학교가 자리했던 곳이다.
- 이곳의 설립목적은 일본군이 화북지역을 점령하자 조선인들이 탈출해 오면 이를 수용하고 교육해 조선의용군으로 입대시키기 위해서다.
- 또한 이곳의 역사적 의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것이다. 이후 무정이 교장을 맡고, 김학무가 교무주임을 맡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시킨 곳이다.
- 이 건물은 절간을 개조해 사용한 것이며 항일운동시기 중국의 신화사가 입주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조선혁명군정학교 안내판(남장촌)



남장촌의 항일운동 설명



중원촌 내 신화사 주둔지



항일운동시기 중원촌에 관한 설명

[그림 1] 남장촌과 중원촌 방문

2. 제2일차(7월 11일)

○ 십자령(十字嶺) 전투지 방문

- 십자령은 항일투쟁시기 태항산지구 최대 격전지이다. 1942년 5월 일본군은 약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곳을 공격했다.
-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중국 팔로군은 완전히 포위됐었는데 이때 퇴로를 뚫어준 군대는 다름 아닌 조선의용대였다. 그 당시 팔로군에는 등소평, 팡덕회, 주덕 등 이후 중국 내 정치 거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조선의용대 덕분에 살아남게 된 것이다.

-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전투에서 팔로군 부참모장인 좌권 장군과 조선의용대의 리더 석정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산화했다.
- 이후 전쟁이 끝나고 모택동 등 중국의 지도부는 십자령 전투에서 산화한 세 분의 열사를 위해 대대적인 모역 작업을 해서 이곳에 안장을 하고 묘지를 만들었다. 그러다 1950년 10월에 세 분의 유해는 새로 건립한 한단시에 위치한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에 안장했다.

○ 운두저촌(雲頭底村)/상무촌(上武村)/마전(麻田) 방문

- 운두저촌은 항일투쟁시기 조선의용대가 일본군내 조선인의 투항을 선전 한 곳으로 현재에도 건물에 써놓은 표어가 남아있다.
- 상무촌은 조선의용대가 최초로 주둔한 곳이다. 이 마을 뒤로 산중턱에는 조용의용대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데 현재에도 마을사람들이 해마다 한식 때가 되면 벌초도 해주고 제사도 지내준다고 한다.
- 마전은 항일투쟁시기 중국공산당의 주력 부대였던 팔로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십자령 전투 유적지



상무촌 조선의용대 무명용사 묘지



조선의용대의 최초 주둔지인 상무촌 홍복사



조선의용대가 선전활동을 한 운두저촌의 선전문구(표어: 왜놈의 상관을 쏘아 죽이고 총을 매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그림 2] 운두저촌, 상무촌, 마전 방문

3. 제3일차(7월 12일)

○ 적하촌(赤下村) 방문

- 적하촌은 팔로군의 주력 부대인 129사단의 주둔지이다.
- 현재 이곳은 중국의 홍색관광지(중국 공산혁명 당시의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한 지역)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이곳은 등소평이 두 아들을 낳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 마을 내에는 많은 공산혁명과 항일투쟁의 유적이 있는데 마을 뒤쪽에는 혁명기념관도 있어 항일투쟁의 시기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다.

○ 석문촌(石門村) 방문

- 석문촌에는 항일투쟁시기 산화한 팔로군 부참모장 좌권과 조선의용대의 리더 석정 윤세주와 진광화가 1942년 10월 처음으로 안장된 묘역이 있다.
- 이 묘지는 당시 마오쩌둥 등 중국의 수뇌부들이 특별히 주문한 최고의 명당자리이기도 하다. 두 분의 유해는 1950년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됐다. 묘소 인근에는 2005년 8월 15일 개관된 조선의용군 열사 기념관이 있어 조선의용대(군)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 연수단은 이곳에서 두 열사를 기리는 추념 활동을 했다.



적하촌에서 활약한 중국의 리더들(등소평 등)



적하촌의 혁명열사기념관



석정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 참배



연수자 합동 참배(석문촌)

[그림 3] 적하촌과 석문촌(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 참배)

▶ 참고: 윤세주, 진광화 열사 소개

- 윤세주(尹世胄, 1901년 6월 24일~1942년 6월 2일). 호 석정(石正).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세살 위인 김원봉과 같은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이후 평생 함께 독립 운동을 하는 동지가 됐다. 그는 1919년 서울에서 3·1 운동 시위에 참가한 뒤 고향에 내려와 밀양 지역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중국으로 피신.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하고 김원봉이 그해 11월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38년에는 군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정치위원을 맡았다. 조선의용대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그는 민족혁명당 편찬위원회 등에서 일하다가, 1941년 김원봉과 헤어져 박효삼과 함께 화북 지방으로 북상하여 팔로군과 공동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2년 4만 명의 일본군이 총공세를 벌인 태항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을 총지휘하며 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198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 진광화(陈光华, 1911~1942. 5. 28).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 일제강점기인 1931년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 난징[南京] 오세(五世)중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한국유난징학생회[韩国留学生南京学生会]의 간사를 맡아 활동하였고, 난징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조직 한교회(韩侨会)의 중앙간부로 재직했다. 이어 1929년 조직된 한국혁명당(韩国革命党) 산하단체 철혈단(铁血团)에 가입하여 기관지 《우리길》을 발간했다. 1933년에는 광저우[广州]로 가 중산대학(中山大学)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41년 화베이조선청년연합회[华北朝鲜青年联合会] 진기로예지회장과 화베이지방 조선의용대(朝鲜义勇队) 화북지대 지도원 직책을 맡아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1942년 6월 마전장(麻田战)에서 일제의 대규모 진압군과 교전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 백사촌(白沙村) 방문

- 백사촌은 한단시의 현급시인 武安市 淑村镇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풍부한 광산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발전시킨 사례이다. 2005년 촌집체 경제로 3,000만 위안의 소득을 올렸다. 농민의 연평균 소득은 5210위안으로 전년대비 500위안이 올랐다. 주변에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경제적 소득기회도 높아졌다.
- 마을에는 모두 580가구, 2,300명이 있고 14개 촌민소조가 있다. 2004

년부터 1.9억 위안을 투자해 촌을 개조해 12개 주택단지를 만들어 510가구가 현대화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이주해 사회주의 신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 백사촌의 전체 토지면적은 14,991무이고 그 중 경지면적은 2,631무이다. 임야는 12,360무이고 산림녹화율이 95% 이상이다. 신림, 과수, 축산 등을 두루 갖춘 발전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이용해 집체경제를 발전시켜 촌민 모두가 잘 사는 마을로 발전시켰다. 2007년말, 마을에는 이미 철광, 양돈장, 주유소, 바이오가스시설 등 총 28개의 집체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마을 전체 수입은 3,200만 위안, 일인당 순수입은 6,250위안에 달한다. 이는 일반 농촌마을 주민의 수입보다 2~3배 많은 액수이다.
- 현재 이곳은 성공한 '모택동마을'(모택동의 사상과 같이 철저한 공산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마을)로 알려지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마을 내에도 관광농업시설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거리들이 있다.



백사촌의 전경(모택동 동상이 설립되어 있음)



백사촌의 입구



백사촌의 관광농업시설 안내도



마을 내 선진적인 농업시설

[그림 4] 적하촌, 석문촌, 백사촌 방문

4. 제4일차(7월 13일)

○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 방문

- 진기로예 혁명열사능원은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하남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열사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현충원과 같은 곳이다.
- 이곳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열사능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능원에는 좌권 장군의 묘 서편으로 진광화 열사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다.
- 입구에는 마오쩌둥이 쓴 “無上光榮” 혁명탑기념탑이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 연수단은 이곳에서 두 선열을 기리는 추념 활동을 했다.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



진광화 열사의 묘

[그림 5] 한단시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의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지

○ 황북평촌(黃北坪村) : 4인의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는 곳

- 이곳은 하북성 석가장시의 태항 제1군사령부소재지로, 1941년 12월 일본군과의 호가장전투가 벌어져 팔로군 12명과 조선의용대 대원(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이 전사했는데 그 중 조선의용대 4인의 용사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 당시 호가장 마을 주민은 일본군들이 그들의 묘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에 모시지 않고 호가장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황북평촌(黃北坪村) 지역에다 모셨다.
- 묘지 입구에는 "조선의용군 태항산(太行山) 지구 항일전 순국선열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 연수단은 이곳에서 4인의 용사를 기리는 추념 활동을 했다.



묘역 제초 작업



4인 열사의 묘비



4인 열사 참배



참배 후 단체사진

[그림 6] 황북평촌 4인 열사 묘지 방문 및 참배

▶ 전사자 소개: 네 분 중 충청도 출신 박철동, 최철호 약력

- 박철동 : (朴喆东, ? ~1941. 12. 12) 충청남도(충청북도?) 출신. 1936년 중국 낙양 중앙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192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했다, 1935년 파견을 받고 화남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규수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1939년에 낙양에서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 최철호 : (崔铁镐, 1915. 6. 19~1941. 12. 12) 대전인. 1935년 중국 남경에서 혁명활동에 참가,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 제6기로 졸업, 한구지역 조선청년전시복무단과 조선의용대 제1-5전구에서 대적선전사업에 종사했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조선의용대 서안관사처(西安办事处) 주임에 임명됐다. 1941년 조선의용대는 적후방의 혁명 무장부대를 건립키 위해 대적선전과 유격전을 치렀다. 호가장 전투 중 일본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 손일봉은 평북 의주인

* 이정순은 평북 벽동인

○ 하북성 석가장 현대농업시범구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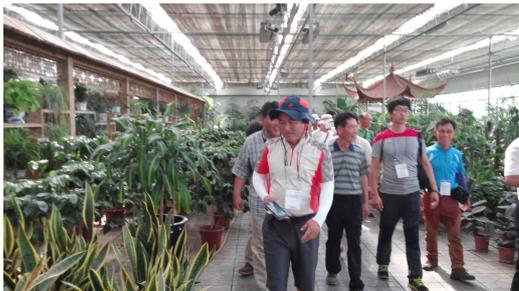
- 하북성의 성도인 석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 현대농업시범구는 하북성정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곳이다.
- 시범구는 크게 유리온실과 야외 농업시설이 있는데 유리온실에는 주로 열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과일과 채소 등 식재되어 있고 실외에는 중국의 다양한 농작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 이 시범구의 특징은 유리온실 내에 연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지역민의 결혼, 가족행사, 각종 회합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채만들기 체험(세종시, 2015.7)



친환경 깍뚜기만들기 (세종시, 2015.7)



공주밤엿 만들기 체험(아산시, 2016.10)



조롱박에 그림그리기 체험(아산시, 2016.10)

[그림 7] <고향마실페스티벌>의 농어촌체험 활동

5. 제5일차(7월 14일)

○ 왕푸징 근대사연구소(구 일본군 헌병사령부, 이육사 순국지)

- 베이징에서 가장 변화한 왕푸징에는 구 일본군 헌병사령부(현재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수용소가 있는데 이곳은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이육사 열사가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한 장소이기도 하다.

- 이육사 열사는 일찍이 항일투쟁에 투신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기와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이곳으로 이송되어와 이곳 수용소 지하실에서 고문으로 인해 순국했다.
- 우리 연수단이 방문할 때 마침 건물앞에 청포도가 열려있어 이육사 열사의 시 '청포도'를 읊으며 이육사 열사의 애국정신과 저항정신을 추념했다.
- 이곳은 현재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어 찾아가기 쉽지 않는데 상태인데 이 건물 또한 얼마 안 있어 개발이 된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구 일본군헌병사령부 자리의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이육사 열사가 순국한 구 일본군헌병사령부의 수용소(뒤에 청포도가 열려있음)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의 연수단 단체 사진



왕푸징 미식거리에서 중국음식 체험

[그림 8] 시인 이육사 열사의 순국 장소인 왕푸징의 구 일본군헌병사령부와 천안문 광장

Ⅲ. 전체 평가

1. 충남도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북경시, 하북성 연수는 중국 농업의 변화와 항일 역사를 동시에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2. 특히 하북성은 충남도와 오랜 동안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 교류활동을 증진하는 것은 두 지역의 우호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3.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에서도 이번 연수는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 지역 내 항일투쟁의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함. 또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 농민회에게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전함
4. 하북성 태항산 지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회주의계열 독립투쟁 활동이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연수단의 이러한 방문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의는 깊고 많은 생각과 배움의 기회였다고 평가됨